

# 광주 軍 공항 이전, 지방선거 끝나고 급물살 탈까

당선 유력후보 이전문제 적극적  
여론수렴·지역주민투표 강조  
이전부지 스마트시티 등 추진



광주 도심을 비행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지방선거로 주춤하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선거가 끝나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취임하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 후보지역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 작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안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활발하게 이뤄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 공백과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 유력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가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시장이 되면 전남지사와 공항 이전 장소(입지)에 대해 바로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 조기에 이전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일지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군 공항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전남지사 유력 후보의 입장은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단순히 찬반 입장을 개진하는 것보다

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와 광주시, 공군 등과 협의의 절차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해당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여론 수렴과 주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무안 공항을 통합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자는 일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과 투표를 거친다면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해서 선거가 끝나면 양 시·도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전 대상 지역의 주

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다.

새로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했더라도 이전 후보지 주민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도 단체장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전작업에는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이전 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4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전남도와 함께 국방부와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이전사업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나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끌어내고 주민을 설득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수국으로 '알록달록' 물든 수목원

초여름과 가장 어울리는 꽃, 수국이 전남 해남군 현산면 남도수목원을 알록달록 물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 식사접대부터 돈 봉투까지... 선거현장 얼룩

전남 도내 선거 범죄 기승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할 것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도내 선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품제공,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작 등 온갖 흔탁 양상이 경찰과 선관위 등에 적발되고 있으나 끊이지 않고 있다.

순천에서는 특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인 B씨와 같은 계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에게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1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씨의 집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사하기도 했다.

함평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후보 C씨의 측근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인 D씨는 지난달 11일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5만원권 지폐 10장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이 주민은 봉투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돌려줬으며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평군수 예비후보 한 명이 사조직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신안에서는 지난달 한 주민이 이웃 20여명을 모아 음식 대접을 한 것을 놓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 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와 선거구민 간의 일명 '용봉탕 회식' 역시 경찰이

조만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회식의 불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30일 저녁 화순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이 회식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싸움까지 벌어졌다.

평화당이 "후보와 이장 등 지역인사 수십 명이 자리당 파티를 벌였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경선 낙선자를 위로하기 위한 모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처럼 각종 불법행위로 전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총 300여 명, 160여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비를 가리고,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우이도 ↔ 목포 車도선형 여객선 첫 취항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목포 항로 간 구간에 차도선형 여객선 '드림아일랜드호'가 지난 8일 첫 취항했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도보조 여객선이 목포항까지 하루에 1회밖에 운항하지 않아 도서주민과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에 제한을 받아 불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민영 여객선 취항으로 하루 2회 운항으로 우이도와 내륙간이 1일 생활권으로 변모했다.

이와 함께 항로 폐업으로 해상교통이 두절된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를 기항하는 등 도초면 우이도와 안좌면 사치도 등

지역 해상교통 여건이 개선돼 도서주민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와 안좌면 사치도를 경유해 목포항까지 운항하는 드림아일랜드호는 올해 2월 건조된 449t급 차도선으로 여객 300여명과 승용차 35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도초면 우이도에서 정박 출항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도서지역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항로 개설 및 소규모 어항, 포구의 접안시설 개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신안=김남중 기자

## 농성지하차도 공사구간 제한속도 '40km'로 상향

광주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서구 농성지하차도 공사 구간 제한속도를 현행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구간에 속도 제한 표지 16개, 도로 이정표를 이용한 예고 표지 5개, 공사안내 간판 9개, 노면 표지

등을 보강할 방침이다.

농성지하차도는 상습침수와 급경사·시야확보 곤란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현재 구조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9월까지 농성지하차도를 부분적(1~6단계)으로 폐쇄하고, 2020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전남도청 갤러리

## '수목의 공간' 기획전

전남도는 '전남도청 갤러리' 개관 기념 첫 기획전으로 '수목의 공간'을 선보였다. 도청 청사로비에 약 52㎡(16평) 규모로 설치한 갤러리는 도민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청사 방문객에게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 미술인과 대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준다.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수목의 공간 전시에서는 수목 양식의 작품 24점과 수목화 도구를 선보인다.

허달용, 정경화, 이이남, 이재영 등 현대 작가 4명의 작품 6점도 전시된다.

전남도는 오는 9~10월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수목 기획전을 한 번 더 열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광주시 강변 축 자전거터미널 8곳 '인기'

광주시가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강변 축 자전거터미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광주천변과 영산강변에 운영되고 있는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8곳에 하루 평균 자전거 이용자 500여명이 즐겨 찾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 터미널은 용산교, 중앙대교, 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침단교, 산동교, 어등대교, 극락교, 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이다.

각 거점터미널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돼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김남중 광주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이



광주 자전거 거점터미널

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거점터미널이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거점터미널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 말했다. /광주=김남중기자